

# 서삼석 “국토부 공항계획안 철회해야”

지자체간 분란…국토부 앞선 계획과도 정면 배치

적용 법안도 ‘공항시설법’, ‘군공항특별법’ 등 달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안공항과 광주공항 통합시기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날 발표는 지난 9일 입장문에 이어 재차 국토부 계획안의 부당함을 밝힌 것으로 서 의원은 “국토부 계획안대로 진행될 경우 그동안 추진돼 온 민간공항 통합계획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현재 국토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6

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의하면 무안공항·광주공항 통합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항 통합은 전남·광주 상생의 경제성 측면이고 군공항은 국가 안보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두 가지를 연계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무안공항·광주공항 통합 문제는 소관부처가 국토부와 국방부로 각기 다른 만큼 적용받는 법률도 다르다. 6차 공



국토부의 이번 제6차 계획안은 스스

로 만든 앞선 계획과도 배치돼 행정신뢰를 깨뜨린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2020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최상위 항공계획인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4년)’은 무안공항-광주공항 통합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기본계획에 민간공항 통합이 명시된 것은 2018년 8월로 당시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이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를 통해 무안공항·광주공항 통합에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을 연계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도 이롭지 않은 생뚱맞은 안이어서 논리도 명분도 없는 안이란 점에서 별별의 구실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지자체간의 분란만 조장할 뿐인 국토부 공항개발 계획(안)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추진위원회와 무안반영회 등 무안 주민들은 13일 오전 무안군청 앞에서 국토부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진수기자

여의도 클락

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목포)은 14일 차상위자·수급권자로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이 한정돼 있는 현재 조항에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근로빈곤층인 차상위자·수급권자 대상 사업으로 8월 말 기준, 약 20만 명(비정년+청년 포함)이 혜택을 봤지만 대상이 좁고 지원 금액이 부족해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상이 확대되면 내년 한 해, 연소득 2천400만원 이하 10만 명이 넘는 청년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지자체별로 청년 지원 정책이 달라 지방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정부

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청년을 추가해 사는 곳에 관계없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요지”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이낙연TV’ 보다 눈물 쏟은 이병훈

이개호·윤재갑·서동용 등과 함께 출연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이 유튜브 ‘이낙연TV’를 시청하다 왈칵 눈물을 쏟았다.

14일 이낙연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 국회의원 8명 가운데 유일하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 13일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광주·전남권 의원 4명의 영상을 담은 유튜브 ‘호남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를 시청했다.

이 영상에는 광주의 이 의원과 전남의 이개호·윤재갑·서동용 의원 등 4명이 출연해 자신들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편집됐다.

영상에서 4명의 국회의원들은 “국민 앞에 유능한, 검증 앞에 당당한 후보! 기호 4번 이낙연을 응원한다”면서 각자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호남에서 이낙연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질문에 대해 “호남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나라가 위기일 때 나라를 지켜낸 지역이다”라며 “김대중 대통령 이후의 호남의 재북은 과연 누구냐?”고 되묻다가 울컥했다는 후문이다.

캠프 관계자는 “이병훈 의원의 눈물 때문이 아니라 캠프의 모든 구성원들도 이번 ‘호남 대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후회 없는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野경선레이스 내일 첫 가늠자…尹·洪 1위 경쟁

국민의힘 대선후보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가 15일 발표된다.

세부 결과 및 순위는 비공개에 부쳐지지만, 향후 경선레이스 지형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 결과를 공개한다. 박진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장기표 장성민 최재경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등 11명 예비후보 가운데 3명이 탈락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부터 14일 오후 현재까지 경선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여론조사기관 두 곳에서 책임당원 1천 명과 일반 국민 1천 명씩 총 4천 명을 대상으로 후보 적합도를 묻는 방식이다. 관심은 누가 1위를 차지할지에 쏠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지지

층으로부터 과반을 웃도는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당원투표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이 경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련 포인트다.

보수주자 적합도 측면에서 유독 강세를 보이며 일부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을 제친 홍준표 의원의 저력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누구든 1차 컷오프를 압도적인 수치로 통과할 경우 대세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양강 주자와 더불어 유승전 전 의원과 최재경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성적표도 주목된다.

다음달 2차 컷오프를 거쳐 본경선에 진출할 4명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丁心은 어디로…손 내미는 명낙 구애경쟁

이재명 “성심 다해 모실 것”

이낙연측, 정세균 캠프 접촉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하차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그 지지층을 ‘내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애 경쟁에 들어갔다.

정 전 총리가 얻은 누계 득표는 4.27%에 그쳤지만 범진노·친문과 전복을 아우르는 그의 상징성은 적지 않아서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복잡한 쟁점 속에 손익계산에 분주한 배경이다.

후보는 물론 캠프 실무진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정 전 총리 세력을 최대한 붙잡기 위한 물밑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호남에서 대선 본선행의 쐬기를 박으려는 이 지사는 이날 공개 러브콜을 보냈다.

이 지사는 전북 공약 발표 기자회견회에서 “정 전 총리가 가시고자 하던 길,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 당연히 정치인이라면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분들을 많이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지…”라며 “(정 전 총리가) 여러모로 아프실 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다”면서도 “(모실) 의지는 당연히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성심을 다해 낮은 자세로 잘 모시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이 지사는 조만간 정 전 총리와 직접 연락하고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 진영도 분주히 움직이며 표 끌어오기에 나섰다.



행사장에서 만난 이재명·이낙연

14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과 이낙연 전 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력·지역·정체성 등에서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의 공통분모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 세력의 상당 부분을 견인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것이다.

이 전 대표측은 호남 출신 유일 후보라는 대표성을 확보한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당장 이낙연 캠프 측 관계자들은 정 전 총리가 후보직을 내려놓은 지난 13일 저녁부터 캠프 핵심 실무진들과의 개별 접촉을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이 전 대표도 조만간 정 전 총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캠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호남 지역에서 조직 운동을 펼치기도 쉬워졌다. 여기에 민주주의 4.0으로 대변되는 친문 인사들의 선택도 한결 쉬워졌을 것”이라며 합류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다른 주자들도 정 전 총리 표를 끌어와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추미에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 SNS에 “민주 정부 4기 수립과 정권 재창출에 지대한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썼다.

박용진 의원은 정 전 후보가 중도하차를 발표한 전날 저녁 곧바로 전화를 걸어 위로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총리를 향해 “마음 추스르시고 시간간 허락되실 때 파스한 밥 한번 사달라”고 했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